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태어났을 때 따라

혼싱 緣연分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부부가 될 인연, 천생연분

나 흐나 꺾어잇고 님 흐나 날 꺾시니,

오직

이 막음 이 스랑 견줄디 노여 업다.

비교할 데

평생싱애 願원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살아가고자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홀로

엇그제 님을 피서 廣광寒한殿殿의 올랐더니

달 속에[↕]있다는 궁전. 여기서는 임금의 계시는 궁궐, 신선사상

그 더디 엇디호야 下하界界에 내려오니.

인간 세상. 여기서는 고향인 전남 창평

을 저기 비슨 머리 얼키연디 三삼年년이라.

형클어진 지, 관직을 그만 둔 지 3년이 지났다.

燃燃脂지粉분 잇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화자가 여성임을 알게 하는 소재

막음의 띠친 실음 疊疊疊疊이 빠져 이서,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대구

人人生싱은 有有限호호디 시름도 그지업다. 대구, 대조

無무心호 歲歲月월은 물 흐르듯 호논고야.

炎염涼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더움과 서늘함. 시간의 흐름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 (서사) 임과 헤어진 뒤의 슬픔과 그리움

이 몸이 태어날 때에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아 갈 인연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곳이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기를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엇그제는 님을 모시고 광한전(궁궐)에 올라 있었더니,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창평)에 내려 왔느냐. 내려올 때에 빚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 3년일세. 연지와 분이 있지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치장할까?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한정이 있는 데, 근심은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가는구나.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뀔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낀 일이 많기도 많구나.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적雪설을 헤터내니,

□ :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봄바람 잠깐, 문득

窓창 밖과 심근 梅梅花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여백의 미

↳ 그윽한(은은한) 향기, 충정

갯득 냉닝 淡담흔 디 暗암香향은 므스 일고.

가뜩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黃황昏혼의 ㉠이조차 벼마틴 빗치니,

임금 배갯머리에

늦기는 듯 반기는 듯,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梅花화 것거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나타내는 매개체

님이 너를 보고 었더타 너기실고.

⇒ (본사1, 춘원) 봄에 그리워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그윽히 풍겨오는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에 달이 따라와 배갯머리에 비치니, 느껴 우는 듯, 반가워 하는 듯 하니,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 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녹陰음이 실렸는디,

나무 그늘

羅나緯위 寂寂寞막하고 繡슈幕막이 뷔여 있다.

옅은 비단 휘장 수놓은 장막

芙부蓉용을 거더 노코 孔공雀작을 둘러 두니,

연꽃을 그린 휘장 공작을 그린 병풍

갯득 시름 한디 날은 었디 기뻐던고.

駕원鳶양錦금 버혀 노코 五오色식線선 플터내여,

원앙을 수놓은 비단 오색 실 풀어내어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미화법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나타내는 매개체

手슈品품은 ㄴ니와 制제도도 ㄴ줄시고.

숨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珊산瑚호樹슈 지게 우히 白백玉옥涵함의 다마 두고,

미화법 미화법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山산인가 ㄱ름인가 머흐도 머홀시고.

자신과 임 사이의 장애물, 간신배

千천리 萬만리 길홀 뉘라서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본사2, 하원) 여름 날 님에게 옷을 지어 보내는 마음

꽃잎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비단 휘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드리워져 있다.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걷어 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 두니,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원앙이 새겨진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 실을 풀어 내어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만들어 내니, 숨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그 옷을 담아 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리나 되는 먼 길을 누가 찾아 갈까? 가거든 열어 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하실까?

하룻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리 뉘 제, 감정이입

危樓루에 혼자 올라 水晶晶簾님 거든말이,
높은 누각 거드니

東동山산의 달이 나고 北북極극의 별이 뵈니,

임금 상징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궁궐

淸淸光광을 쥐여내여 鳳鳳凰凰樓樓의 붓티고져.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나타내는 매개체, 선정

樓樓 우히 거리 두고 八팔荒荒의 다 비취여,

온 세상

深심山山 窮궁谷곡 접낫ㄴ티 땡그쇼셔.

대낮

⇒ (본사3, 추원) 선정에 대한 당부

하룻밤 사이 서리가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으로 된 발을 걸으니, 동산에 달이 뜨고 북극성이 보이니, 님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님이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다.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 깊은 산골짜기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乾건坤곤이 閉폐塞식 하야 白백雪설이 흔 빗친 제,

하늘과 땅 추위에 얼어

사름은ㄴ니와 놀새도 꺾쳐 있다.

적막감

瀟소湘상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전라도 창평

玉옥樓樓高고處처야 더욱 닐너 뜨숨 흐리.

임금 계시는 곳

말해

陽陽春춘을 부쳐내여 님 겨신 덕 쏘이고져.

따뜻한 봄기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나타내는 매개체

茅모簾簾 비친 히를 玉玉樓樓의 올리고져.

초가집 처마

紅紅裳裳을 니미치고 翠취袖袖를 半반만 거더,

화자가 여성임을 알게 하는 소재

日일暮모 修修竹竹의 絢絢然然도 하도 할샤.

해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함. 생각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淸燈燈 거른 것티 鉤鉤空空侯후 노하두고,

조개 장식한 공후, 화자가 여성임을 알게 하는 소재

텍 바치고

鴛鴦禽금도 초도 출사 이 밤은 언제 살고.

독수공방의 외로움

⇒ (본사4, 동원) 독수공방의 외로움

천지가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모두 흰 눈에 덮여 있을 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도 날아다니지 않는다. 소상강 남쪽 둔덕(전남 창평)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쪽 임 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랴. 따뜻한 봄기운을 부쳐내어 님 계신 곳에 쇄게 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님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해는 저물었는데 대나무에 기대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꽃꽂이 앉아, 청사초롱을 걸어 둔 옆에 조개로 수놓은 공후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나 썰까?

하루도 열두 세 혼 들도 설혼날,

저근뎛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잠깐 동안

먹음의 먹쳐 이서 骨骨髓슈의 쉼터이니,

뻗속 사무쳤으니

篇편鵲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흐리.

정의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불교의 윤회사상

죽어서. 화자의 분신

곶나모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안니다가,

항 모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충정 날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차려 흥노라. 정격가사

⇒ (결사) 죽어서도 님을 따르려는 마음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님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을 잊으려 해도 마음속에 맺혀 있어 뼈 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랴.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 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마다 앉고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기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갈 래 : 서정 가사, 양반가사

을 격 : 3(4).4조의 4음보 연속체

문 체 : 운문체, 가사체

성 격 :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주 제 : 연군지정(戀君之情)

시상전개: 사계절 변화에 따른 전개(본사)

의 의 : ‘솔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극치를 이룬 작품. 고려숙요 ‘정과정’의 맥을 잇는 연금지사임

특 징 : 연구의 정을, 하 여인이 남편을 잃고 연모하는 마음에 비겨서 노래하였다. 우리 말의 사용이 두드러

짐(김만중이 '동방의 이소'라 비유함)

해 설

작자가 50세 때인 1585년(선조 18) 동인(東人)이 합세하여 서인(西人)을 공격하므로 서인의 앞장을 섰던 송강은 부득이 고향인 창평(昌平)에 내려가 4년 동안을 지내야만 했다.

이 가사는 그 동안에 지어진 작품으로, 정홍명(鄭弘溟)이 이식(李植)에게 보낸 편지에 《사미인곡》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87년(선조 20)에서 88년 사이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작자는 이 가사에서 임금에 대한 간절한 충정을, 한 여인이 지아비를 사모하는 마음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뜻을 우의적(寓意的)으로 표현하였다. 제목은 《시경(詩經)》이나 《초사(楚辭)》에서 따온 것이지만 내용은 순수한 우리말을 구사한 창작이다.

모두 63절(행) 126구(句)로 이루어졌다. 전편(全篇)의 구성은 ① 서사(緒詞), ② 원사(怨詞:春怨·夏怨·秋怨·冬怨), ③ 결사(結詞) 부분으로 3분단(分段) 할 수 있다. 이 가사의 속편인 《속미인곡(續美人曲)》이 있는데, 그것 역시 동곡이교(同曲異巧)의 작품으로, 송강 스스로도 두 작품을 통틀어 '전후미인곡(前後美人曲)'이라 일컬었다. 가사문학의 정상(頂上)으로 꼽히는 작자의 가사집 《송강가사》에 수록되어 전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